

1 통합공모 방식 도입 취지 및 접수 현황

○ 사업 간 명확한 차별화와 긴밀한 연계를 위한 대대적 구조 개편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확산을 위한 전략을 담은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5개년 기본계획(2022-2026)에 근거하여 진행되어 온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사업은 올해를 계기로 큰 구조적 변화를 맞이했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인문사업 전담기관으로서 기존에 여러 협력기관이 분산해서 운영하던 사업을 전년도 시설 유형 통합에 이어 올해는 아래 표와 같이 5개 세부 사업(약 90억원 규모)에 대한 공모를 1분기 중 동시에 진행하면서 실제 사업기간 확대 및 다양한 사업 운영 주체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다.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 개요
1) 길 위의 인문학	700개 프로그램 (70억원)	인문에 대한 관심 증진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강연과 체험, 지역 인문자원 탐방 등을 결합한 프로그램 운영
2) 지혜학교		인문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로 삶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대학 교양 과목 수준의 심화 인문 프로그램 운영
3) 청년 인문실험	100팀 (2.3억원)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개인 및 사회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살펴보고, 인문적 관점에서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청년 주도형 자율 설계 사업
4) 청소년 인문교실	29개 기관 (15억원)	인문교육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 및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등이 사회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는 프로그램 운영
5)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전국의 중장년 재취업지원기관 및 문화도시, 도시재생 사업 등의 일환으로 조성된 시설과 연계하여 중장년 세대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접수/선정 현황과 시사점

이번 통합공모에는 전년도 공모사업(사업길위의인문학, 지혜학교, 청년인문실험) 대비 79건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공모사업은 총 1,578건이 접수되었다. 특히, 39세 이하로 구성된 팀 단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청년인문실험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사업명	길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청년인문 실험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계
'25년 접수건수(A)	779	337	406	19	37	1,578
'24년 접수건수(B)	803	385	255	<'25년 시범도입/신규>		1,443
전년대비 증감(A-B)	△24	△48	151			135

이 중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 4건, 타 사업에 지원신청 10건, 파일 오류 2건, 신청 기관 자격 부적격 11건 등 27건의 행정결격을 제외한 1,551건에 대하여 총 20명의 심의위원단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올해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필수서류 등을 최소화하고, 신청서 양식 통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누락

시 알립 기능 개선 등 열심히 준비한 인문프로그램이 신청과정에서의 착오 등에 의해 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이전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연령 제한 등의 필수 요건 미비 등의 사례가 발생한 점이 안타까웠다.

무엇보다 신청 현황 분석 과정에서 주목할 점으로 파악된 것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 지역의 신청 비중이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에서 70~80% 비중이 신청과 선정비중을 차지하는 전국 단위 공모사업과 비교할 때 약 43%에 육박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신청 비중과 그에 준하는 선정률은 고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위 : 건, %)

사업명	접수건수(신청률)				계	선정건수(선정률)				계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길위의인문학	396	50.8	383	49.2	779	273	54.6	227	45.4	500
지혜학교	196	58.2	141	41.8	337	118	59.0	82	41.0	200
청년인문실험	285	70.2	121	29.8	406	72	72.0	28	28.0	100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10	1.3	9	47.4	19	6	46.2	7	53.8	13
중장년 인문프로그램	18	48.6	19	51.4	37	6	37.5	10	62.5	16
계	905	57.4	673	42.6	1,578	475	57.3	354	42.7	829

이를 전국 17개 시도로 세분화하면 청년인문실험 사업에서는 서울이 44%의 비중으로 여타 사업의 경향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지만, 길 위의 인문학의 지역별 선정 비중을 보면 대부분의 권역에서 두 자릿수 프로그램들이 선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공고문에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신청한 경우, 심의 과정에서 우대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전국에서 인문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향 역시 지역 균형을 중심에 두고 심의를 진행하고자 했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계
사업명	건수/비율	서울	경기	인천	강원·충청권					경상권					호남·제주권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경남	경북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길위의인문학	건수	123	124	26	15	11	10	18	7	20	21	24	26	12	11	21	21	10	500
	비율	246	248	5.2	3.0	2.2	2.0	3.6	1.4	4.0	4.2	4.8	5.2	2.4	2.2	4.2	4.2	2.0	100
지혜학교	건수	69	40	9	5	2	1	4	4	6	14	9	15	1	5	3	8	5	200
	비율	345	200	4.5	2.5	1.0	0.5	2.0	2.0	3.0	7.0	4.5	7.5	0.5	2.5	1.5	4.0	2.5	100
청년인문실험	건수	44	24	4	5	2	0	2	1	0	1	5	2	2	1	3	0	4	100
	비율	440	240	4.0	5.0	2.0	0.0	2.0	1.0	0.0	1.0	5.0	2.0	2.0	1.0	3.0	0.0	4.0	100

마지막으로 지난 2013년 도서관을 중심으로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이 본격 확대되며 상당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본사업의 세부 시설별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지역서점이나 생활문화시설의 비중이 20%를 상회 할 정도로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지자체 또는 광역, 기초 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공공 도서

관이 오랫동안 탄탄하게 지평을 넓혀준 것을 토대로 점차 다양한 생활문화 공간과 복합문화공간 등에서도 기획력이 가미된 수준 높은 인문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사업명	시설별 유형					계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서점	기타	
길위의인문학	47	326	11	38	78	500
	9.4%	65.2%	2.2%	7.6%	15.6%	100%
지혜학교	12	156	0	10	22	200
	6.0%	78.0%	-	5.0%	11.0%	100%
계	59	482	11	48	100	700
	8.4%	68.9%	1.6%	6.9%	14.3%	100%

2 지원대상 선정 과정

앞서 살펴본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통합공모 심의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1) 심의위원 대상 온라인 사전 설명회(심의위원 간 블라인드) => 2) 심의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 3) 온라인 지원심의 회의 개최(청소년 및 중장년 인문 프로그램은 2차 인터뷰 별도 진행)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총 20명의 심의위원단 대상 온라인 사전 설명회 및 오리엔테이션

본격적인 지원심의를 앞두고 앞서 설명한 대대적인 사업구조 개편의 배경과 정책 방향, 세부 사업별 주안점, 심의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을 해소한 뒤 20명에 이르는 대규모 심의위원단이 합의된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자 심의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 및 회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때 사전에 각 심의위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무기명 처리와 함께 공통, 개별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구조적으로, 개별 심의위원이 독립적으로 심의기준에 의거하여 자율적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도 밝히는 바이다.

인문 분야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기 때문에 심의위원의 전공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경험이 다수 있거나, 학교에서 교육자로서 활동하거나 인문 분야에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 성비, 연령, 거주/활동지역 등 3대 기준을 고려하여 최종 20인으로 위촉했다. (심의위원 세부 명단은 결과발표 페이지 참조)

* 심의위원단 3대 구성 기준 분포 : 신진(40대 이하) 10인(50.0%) / 여성 9인(45.0%) / 비수도권 10인(50.0%)

두 차례의 설명회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지원 내용과 더불어 지원신청 현황, 심의계획 및 방향성을 심의위원에 설명하였고, 정성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개별 심의

위원의 주관을 최소화하고자 적정한 평가 수준과 판단 근거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특히,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청년인문실험 등 3개 사업은 개별 심의위원의 서면 전수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2) 통계적 기법을 적용한 심의결과 도출

심의를 앞서 설명한 5개 세부 사업별 심의기준에 맞춰 개별 심의위원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 채점 방식으로 진행했다. 다만, 작년과 다른 점은 물리적으로 1,500여건의 지원신청서를 20명의 심의위원이 충실하게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기술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작위 조별 배정과 심의위원별로 관대화/엄격화 채점 경향에 따른 신청자의 이익/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점수화(보정) 작업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즉, 심의위원 명단을 랜덤(무작위) 선정 방식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개 그룹당 2명씩 배정하여 총 10개 심의그룹을 편성했고, 심의위원별로 최소 2명씩 교차되도록 배정하여 개인별 200건 내외의 심의건수만을 배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설계했으며, 심의위원의 점수 배점 분포를 분석하여 특정 심의위원이 지나치게 엄격하게(또는 관대하게) 평가점수를 책정하여 발생하는 통계적인 영향을 줄이는 표준 점수화를 적용했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사 사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활용하고 있는 표준점수제도가 있다. 수능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응시생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영역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원점수 상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당 원점수의 상대적 순위(서열)을 나타내는 점수를 의미하는 표준점수로 전환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3) 신규 시범사업(청소년/중장년 인문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다양한 사업 유형과 파트너 발굴

지역별 접수/선정 현황을 통해 비수도권에서도 약 43%의 비중으로 선정된 외형적인 긍정적 요소를 제시한 바 있으나, 그 이면에는 그동안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가 비수도권에서는 공동 도서관 위주로 연속해서 선정되어 온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0여년이 넘게 진행된 길 위의 인문학에서 동일 시설 중 5년 이상 선정된 이력이 있는 시설(전체 301개)은 대부분이 도서관이고, 비수도권이 오히려 162개로 54%의 비중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비수도권일수록 지원신청서상의 인문 프로그램 기획력의 편차가 커서 소위 ‘되는 곳만 계속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분석 결과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존에 공개입찰을 통해 전문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 운영 방식으로

진행해 온 청소년 인문프로그램과 중장년 인문프로그램(사업명 :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의 운영 방식을 이번 통합공모에 포함시켜 광역/기초 문화재단 및 지자체 설립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발한 시범사업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더 이상 소위 ‘중앙’이나 특정 소수의 전문가들이 기획하는 인문프로그램이 전국에 확산되는 하향식 형태의 표준화된 프로그램 확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문 프로그램이 상향식으로 제안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지역별 사례를 발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적절한 성과평가 방식, 모니터링 운영 등에 집중하는 구조로 변화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첫 시범사업인 만큼 애초 이러한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프로그램의 기획 방향이 명확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심의위원단 전체의 합의된 의견에 따라 잔여 예산이 발생하더라도 지원신청 건수 대비 1차 심의에서 당초 배정된 예산보다 적은 기관을 2차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5월에 진행된 2차 인터뷰 심의에서도 신청기관의 실행 역량과 의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질의응답이 그룹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용역 업체 선정하는 방식처럼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별로 편성된 기관들간에도 상호 간의 고민이나 어떻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학습의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인터뷰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2차 심의에서는 특히 청소년과 중장년에 특화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해 온 기관의 소속 전문가를 추가로 심의위원으로 각 1명씩 추가 위촉하여 해당 관점을 기존 심의위원들과 공유하며, 인터뷰 종료 이후에도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대부분의 선정기관에 사업계획 개선 의견을 담은 조건부 선정을 의결하였다. 6월과 7월 중에 진행될 워크숍과 교류활동을 통해 해당 내용은 별도로 전달될 예정이다.

3

심사위원단 종합의견 및 향후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제언

3월 통합공모 설명회에서 담당부서(인문정신확산팀)에서 밝힌 올해 사업의 키워드는 ‘자율’ 이었다. 그동안 현장(시설 관계자, 참여 강사, 수강생 등) 의견수렴 결과 반복적으로 제안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기본적인 10회차 이상의 강의와 탐방 형태 외에도 탄력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운용의 폭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올해 처음으로 길 위의 인문학에서는 ‘자율 설계형’ 이 신설되어 제안하는 프로그램의 주제와 유형에 맞게 회차나 운영 방식 등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총지원건수 779건 중에 약 34%에 육박하는 263건이 접수될 정도로 호응이 매우 높았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특히 인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이나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해 온 전문가들의 의견이 프로그램 수준의 편차가 있다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단년도로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2~3개월 간의 프로그램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나머지 기간 동안 이후 후속 모임을 조직하는 것을 독려하지만 뚜렷한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학습이나 교류의 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비단,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청년인문실험에 참여하는 2030 세대들의 개선 의견도 유사했다. 단년도로 마무리 할 수 없는 사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와 적극적인 개입활동, 네트워크 등이 마련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한 다년간 지원 방식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는 처음으로 700개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사례 선정을 하고, 평가 결과 상위 20% 이내에 포함되면 2026년에는 별도의 지원 신청 과정을 생략하고 연초부터 인문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7월부터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청년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할 예정으로 준비 중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수준이 향상되고, 각 지역의 우수 프로그램을 기획한 기획자, 시설운영 담당자, 참여 강사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1,500건이 넘는 지원신청서를 검토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심의위원단이 언급한 것은 사업별 목적에 맞도록 특화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기획하기 위한 기존 전문가와 신규 전문가의 진입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별도로 도입될 필요성에 대한 것이었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는 하반기에 ‘인문매개인력 역량 강화’ 기획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으로 본 사업 공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 2025년도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사업 통합공모 심의위원단 일동